



이집트발(發) 반정부 · 민주화 시위의 중동 내 확산 가능성과 영향 평가

박 철 형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전문연구원(chpark@kiep.go.kr, Tel: 3460-1092)

1. 이집트 정권 붕괴의 배경과 의의
2. 반정부 시위의 중동 내 확산 가능성 검토
3. 한·중동 경제관계하의 관찰대상 국가
4.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민(民)에 의한 이집트의 정권 붕괴는 튀니지 혁명과 더불어 중동 민중의 '인식체계의 변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됨**
 - 이집트가 중동지역에서 가지는 정치·문화적 위상을 감안할 때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 및 정권붕괴 여파는 동일한 종교와 문화를 공유하는 중동 이슬람권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 **중동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중동 반정부 시위가 UAE, 카타르, 쿠웨이트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지로 확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시리아, 이란, 이라크, 예멘 등은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볼 때 이집트·리비아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 **중동 국가별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과 한·중동 경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의 주요 관찰대상 국가는 이란, 이라크, 이집트, 리비아, 예멘(반정부 시위발생 고위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위험도 중간수준), 그리고 쿠웨이트, UAE, 카타르(저위험군) 등 10개 국가임.**
 - 특히 주요 관찰대상국 가운데 우리의 핵심 관찰대상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인 것으로 평가됨.
- ▶ **만약 중동의 반정부 시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걸프지역 핵심 산유국으로 전이된다면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심이 가중으로 인해 국제유가의 단기적 추가상승이 불가피할 것임.**
 - 또한 과거 1·2차 석유파동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산유국의 에너지 생산·운송시설 파괴나 석유자원 무기화와 같이 세계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음.
- ▶ **중동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정부·민주화 시위는 향후 중동의 정치·사회·경제 각 분야 변혁의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만큼, 우리는 중동의 정세변화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중동 진출 및 협력전략을 탄력적으로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중동의 정세변화가 에너지 수급과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에너지 수급 및 수출·수주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정치·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현 지 제반 경영환경 역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 및 시장기회 포착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또한 향후 중동 산유국들과의 협력수단으로 한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 경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동국가와 협력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이집트 정권 붕괴의 배경과 의의

가. 이집트 정권 붕괴의 배경

■ 지난 2월 11일, 이집트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정점에 달한 가운데 30년 장기집권을 유지해온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대통령의 하야 발표가 이루어짐.

– 권력을 이양 받은 이집트 군 최고위원회는 집권 국민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켰으며, 2개월 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올해 8월까지 민간정부에 권력을 이양할 계획임을 밝힘.

■ 이집트 독재정권 붕괴의 배경으로 국민들의 정치·경제적 불만과 뉴미디어를 통한 민중 결집, 민중시위에 대한 군부의 관망 등을 꼽을 수 있음.

■ 1981년 대통령직을 승계한 무바라크는 3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국가비상계엄 체제하에 국가를 통제하며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해왔음.

– 1975년 부통령직에 임명된 무바라크는 1981년 사다트 전 대통령이 암살됨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으며, 이후 비상계엄법과 정치경찰 등을 이용해 정국을 통제해왔음.

– 또한 무바라크 대통령은 헌법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다섯 차례 연임에 성공하며 권좌를 유지해왔는데, 최근 대통령의 차남인 가말 무바라크로의 권력이양설이 제기되면서 부자간 권력세습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해왔음.

■ 대다수의 국민들이 낮은 소득수준과 높은 물가수준, 실업률로 인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무바라크 정권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어왔음.

– 최근 수년간 이집트는 소비자물가가 매년 10% 이상 급등하였는데,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됨.

– 이집트의 공식 실업률은 9~10%이나 실제 실업률은 15~2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대졸자 실업률이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만큼 고학력 청년실업이 심각함.

– 이집트 국민의 1인당 GDP는 약 2,500달러에 불과한 수준인

데, 전체 국민의 30~40%가량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인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무바라크 일가의 은닉재산이 7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평가됨.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정보통신(IT) 기술이 이집트 국내외 시위 관련 정보 확산 및 시위대 결집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신문·방송과 같은 전통 언론매체가 독재정권에 의해 통제되는 가운데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등 신매체가 시위군중 간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며 정권의 언론통제 시도를 무력화시킴.

■ 무바라크와 군부 핵심세력 간 마찰로 반정부 시위사태가 무바라크 정권의 통제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음.¹⁾

– 공군 출신인 무바라크 대통령과 이집트 군부의 핵심세력인 육군 간의 이해관계 대립, 무바라크의 차남 가말이 군부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이란 점도 반정부 시위 동안 군부가 관망세를 유지한 배경일 수 있음.

나. 이집트 독재정권 붕괴의 의의

■ 민(民)에 의한 이집트의 정권붕괴는 튀니지 혁명과 더불어 중동 민중의 ‘인식체계의 변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됨.²⁾

–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왕정 내지 공화정 장기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는 중동 국가에 만연한 권위주의 및 가부장적 가치체계에 도전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는 권위와 억압에 대한 순응적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사회참여적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민주화와 인권, 여성참여 등 중동지역 전반에 잠복한 여타 사회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이집트가 중동지역에서 가지는 정치·문화적 위상을 감안할

1) 홍성민 · 서정민 · 인남식, 대외경제전문가물 토론회자료, 2월 16일.

2) 홍성민 · 서정민 · 인남식, 대외경제전문가물 토론회자료, 2월 16일.

때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 및 정권붕괴 여파는 동일한 종교와 문화를 공유하는 중동 이슬람권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집트는 중동 아랍권을 대표하는 정치강국으로 중동 역내 정치·외교를 주도해 왔으며, 문화와 영화 등 다방면에서 중동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왔음.
- 특히, 정권붕괴를 야기한 이집트 시민운동은 독재정권의 압정하에 있는 주변 중동 국가 국민들의 자유와 정의, 인권, 민주화 등 보편적 사회가치에 대한 요구와 시위를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이미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이집트 사태의 여파가 중동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집트 신용부도스와프(CDS) 금리상승과 함께 주변 중동 국가들의 CDS 금리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음.

그림 1. 이집트 사태 이후 중동 주요국 신용부도스와프(CDS) 금리추이



주: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 18일까지임.
자료: Bloomberg.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반정부 시위의 중동 내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중동 국가별 국민들의 정치·경제적 불만 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가. 정치적 불만도

- 중동 내 반정부 시위 확산의 정치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중동 각국의 부패 수준 및 민주화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집트와 튀니지 반정부 시위의 배경에는 집권층 및 정부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와 장기독재에 대한 민주화 열망 등 정치적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임.
- 부패수준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음.
- 민주화 수준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민주화지수(DI: Democracy Index)를 통해 측정 가능함.

■ 중동국가의 부패인식 수준과 민주화 수준을 종합할 때 이란, 리비아, 예멘, 시리아, 알제리, 이라크, 이집트 등지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도가 주변 중동 국가에 비해 높을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이란(부패 146위, 민주화 158위)과 리비아(146위, 158위), 예멘(146위, 146위)의 경우 부패 수준과 민주화 수준이 모두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함.

○ 시리아(부패 127위, 민주화 152위), 알제리(105위, 125위), 이라크(175위, 111위), 이집트(98위, 138위) 역시 부패 및 민주화 수준이 크게 낙후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UAE, 카타르 등 걸프지역 왕정국가들의 경우 왕정체제를 유지하는 관계로 민주화 수준은 대단히 낙후된 반면, 부패수준은 여타 중동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오만 등의 민주화 순위는 140~160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임.

○ 반면 UAE와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의 반부패 순위는 19~50위권으로 여타 중동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

2. 반정부 시위의 중동 내 확산 가능성 검토

■ 튀니지와 이집트의 사례를 볼 때, 중동 민중의 반정부 시위 발생의 배경에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정치·경제적 불만이

그림 2. 중동 국가별 정치 불만도 수준(부패인식 및 민주화 수준)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EIU를 토대로 필자 작성.

표 1. 중동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및 민주화지수 현황

부패인식지수			민주화지수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카타르	7.7	19	한국	8.11	20
UAE	6.3	28	레바논	5.82	86
한국	5.4	39	이라크	4.00	111
오만	5.3	41	쿠웨이트	3.88	114
바레인	4.9	48	모로코	3.79	116
요르단	4.7	50	요르단	3.74	117
사우디아라비아	4.7	50	바레인	3.49	122
쿠웨이트	4.5	54	알제리	3.44	125
튀니지	4.3	59	카타르	3.09	137
모로코	3.4	85	이집트	3.07	138
이집트	3.1	98	오만	2.86	143
알제리	2.9	105	튀니지	2.79	144
레바논	2.5	127	예멘	2.64	146
시리아	2.5	127	UAE	2.52	148
이란	2.2	146	시리아	2.31	152
리비아	2.2	146	이란	1.94	158
예멘	2.2	146	리비아	1.94	158
이라크	1.5	175	사우디아라비아	1.84	160

주 1) 10점 만점임.

2) 부패인식지수 대상국가는 178개국이며, 민주화지수 대상국가는 167개국임.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EIU.

표 2. 중동 국가별 통치체제 현황

		북아프리카	지중해연안	걸프지역
산유국	공화정	리비아(42년) 알제리(13년)	-	이라크(6년), 이란(7년) 이슬람 신정
	왕정	-	-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비산유국	공화정	이집트(30년) 튀니지(23년)	시리아(11년) 부자세습), 레바논(5년)	예멘(33년)
	왕정	모로코	요르단	바레인

주: () 안은 공화정국가 국가원수의 통치기간임.

자료: 필자 작성.

나. 경제적 불만도

■ 중동 내 반정부 시위 확산의 경제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중동 국가별 소득수준과 실업률, 물가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집트와 튀니지 반정부 시위의 배경에는 낮은 소득과 고실업, 고물가로 인한 생활고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 것임.

■ 중동 국가별 국민소득과 물가수준, 실업률을 종합할 때 예멘, 이집트, 이란 등지 국민의 경제적 불만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예멘과 이집트, 이란의 경우 1인당 GDP가 5,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최근 3년간 연평균 15%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함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어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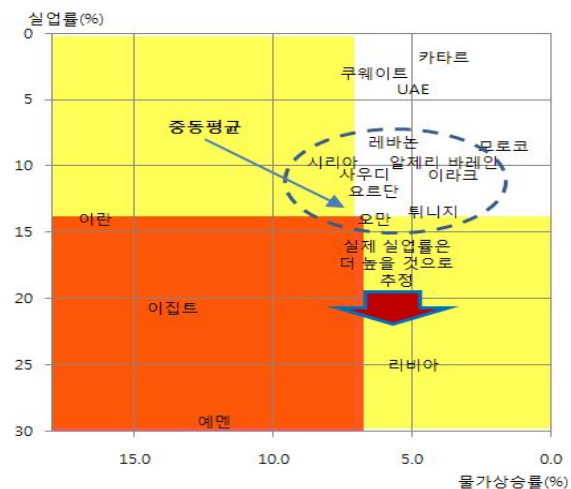
○ 시리아, 요르단, 튀니지, 알제리, 이라크 등도 1인당 GDP가 5,000달러 미만임.

- 더욱이 중동 국가들의 실업문제는 고질적인 사회 현안인데, 예멘, 리비아, 이집트, 이란의 경우 실업률이 15~3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튀니지, 시리아, 알제리, 이라크 등도 정부 공식통계는 10% 내외 수준이나 실제 실업률은 15~2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중동 국가별로 전체 인구의 60~70%가 3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그림 3. 중동 국가별 경제 불만도 수준(실업률 및 물가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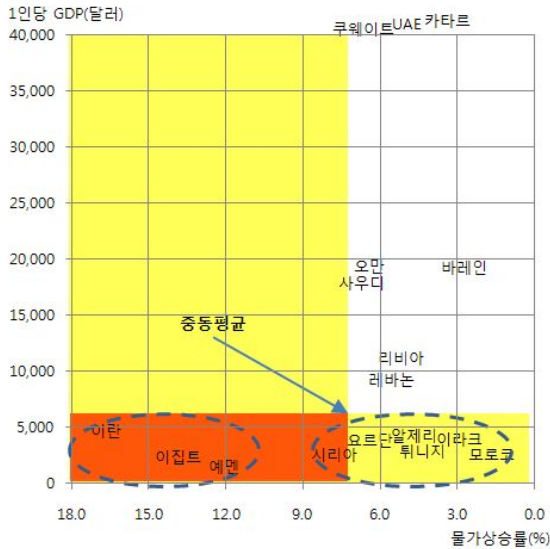
주: 1) 예멘,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 레바논의 실업률은 추정치임.

2) 실업률 통계는 2001~09년까지 입수 가능한 공식 통계치로 실제 실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

3) 물가상승률은 2008~10년까지 3년간 평균임.

자료: Global Insight; EIU; KOTRA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그림 4. 중동 국가별 경제 불안도 수준(국민소득 및 물가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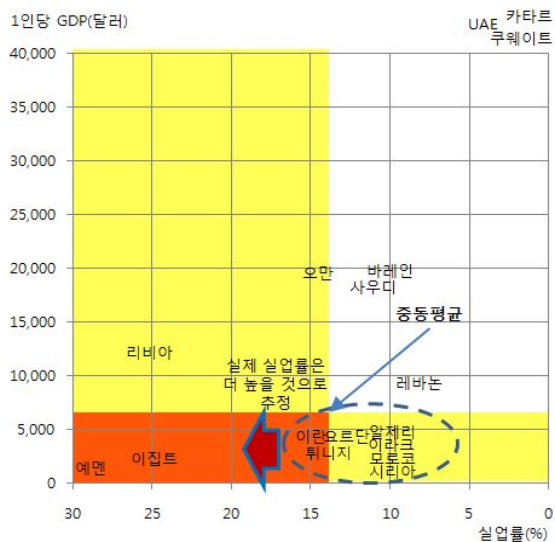


주: 1) 카타르, UAE, 쿠웨이트의 1인당 GDP는 4만 달러 이상임.

2) 물가상승률은 2008~10년까지 3년간 평균임.

자료: Global Insight를 토대로 필자 작성.

그림 5. 중동 국가별 경제 불안도 수준(국민소득 및 실업률 수준)



주: 1) 카타르, UAE, 쿠웨이트의 1인당 GDP는 4만 달러 이상임.

2) 예멘,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 레바논의 실업률은 추정치임.

3) 실업률 통계는 2001~09년까지 입수 가능한 공식통계치로 실제 실업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됨.

자료: Global Insight; EIU; KOTRA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다. 반정부 시위 발생가능 국가분류

■ 중동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시리아, 이란, 이라크, 예멘 등이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됨.

–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시리아, 이란, 이라크, 예멘의 경우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과 경제적 불만이 모두 높은 수준의 국가군으로 분류됨.

○ 따라서 현재 이집트뿐만 아니라 리비아, 알제리, 이란, 예멘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정부·민주화 시위는 국민들의 정치·경제적 불만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태였음.

–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의 경우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은 중간 수준이지만 경제적 불만이 높은 유형으로 분류됨.

○ 튀니지의 사례를 볼 때 시위 발생에서 정치적 요인 못지않게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튀니지와 유사한 국가군에 속하는 모로코, 요르단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레바논은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과 경제적 불만이 중간 수준인 유형으로 분류됨.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인구구성에서 30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60%에 달할 만큼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20~29세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쿠웨이트는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은 중간수준이나 경제적 불만이 낮으며, UAE와 카타르의 경우 주변 중동 국가에 비해 정치적 불만과 경제적 불만이 모두 낮은 유형으로 분류됨.

■ 따라서 중동 반정부 시위가 UAE, 카타르, 쿠웨이트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지로 확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됨.

표 3. 중동 내 시위 발생가능 국가 분류

	경제적 불만 低	경제적 불만 中	경제적 불만 高
정치적 불만 高	–	–	시위발생 가능성 高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시리아, 이란, 이라크, 예멘
정치적 불만 中	쿠웨이트	시위발생 가능성 中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레바논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
정치적 불만 低	시위발생 가능성 低 UAE, 카타르	–	–

자료: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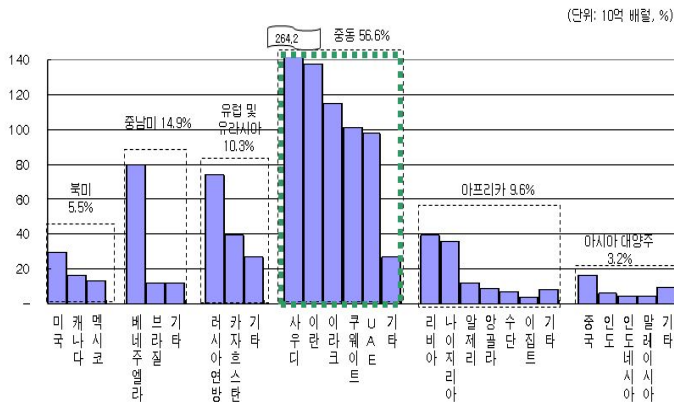
3. 한·중동 경제관계 하의 관찰대상 국가

가. 중동경제의 중요성

■ 중동은 세계 최대 에너지 자원 보유지역으로 전 세계 원유·가스 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세계 원유매장량의 61%, 천연가스 매장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원유생산량의 35%, 천연가스 생산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6. 세계 지역별 원유매장량 분포



자료: BP.

- 특히 세계 석유수급과 국제유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석유수출국가(OPEC) 회원국 가운데 다수 국가들이 중동지역에 밀집되어 있음.
- OPEC 12개 회원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알제리, 리비아 등 8개 국가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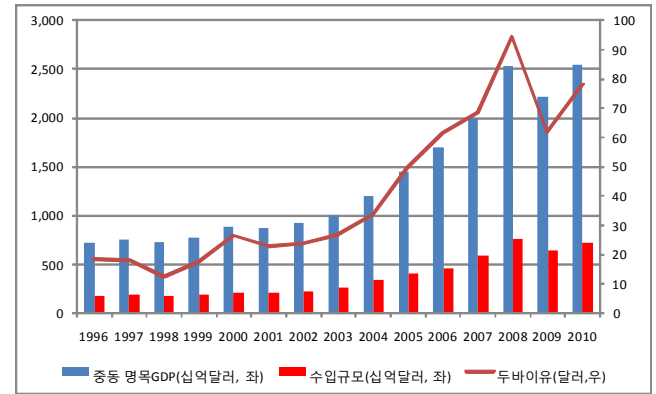
표 4. 석유수출국가(OPEC) 회원국 현황

대륙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명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알제리, 리비아(북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앙골라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자료: 필자 작성.

-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고유가의 영향으로 오일머니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중동지역 경제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 1조 달러 수준이던 중동지역 GDP 규모는 2010년 2.5조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수입시장 규모 역시 2000년대 초반 2,000억 달러 수준에서 현재 7,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 오일머니의 지속적인 유입은 중동의 인프라 투자확대 및 상품수입 증가로 이어져 향후 중동지역은 고유가 시대의 신흥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7. 중동 경제규모(명목 GDP)와 국제유가 추이



주: 2010년 명목 GDP는 추정치임.
 자료: Global Insight; 한국석유공사.

나. 한·중동 경제협력 현황

- 한국의 대중동 중점 경제협력 분야로는 △ 에너지 도입 △ 건설·플랜트 수주 △ 자동차·IT 제품 수출 △ 유전개발을 꼽을 수 있음.
- 중동은 우리의 핵심 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우리나라 원유 도입의 81%, 천연가스 도입의 51%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음.
- 우리의 대중동 원유 수입액은 562억 달러로 주요 원유 수입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수입액 229억 달러, 수입비중 33.3%)와 UAE(88억 달러, 12.8%), 쿠웨이트(85억 달러, 12.4%), 이란(56억 달러, 8.1%), 카타르(49억 달러, 7.2%), 이라크(44억 달러, 6.4%)임.
- 우리의 대중동 천연가스 수입액은 87억 달러로 주요 천연가스 수입대상국은 카타르(수입액 49억 달러, 수입비중 29.0%)와 오만(29억 달러, 17.2%)임.

표 5.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0년 비중
	총계	50,757	68,662	100.0%
1	사우디아라비아	16,766	22,869	33.3%
2	UAE	7,284	8,779	12.8%
3	쿠웨이트	6,256	8,483	12.4%
4	이란	4,862	5,583	8.1%
5	카타르	3,029	4,940	7.2%
6	이라크	3,812	4,406	6.4%
7	러시아	1,766	3,974	5.8%
8	호주	1,885	2,453	3.6%
9	인도네시아	1,182	2,385	3.5%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6.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0년 비중
	총계	13,875	17,006	100.0%
1	카타르	4,519	4,928	29.0%
2	오만	2,814	2,930	17.2%
3	인도네시아	1,410	2,827	16.6%
4	말레이시아	2,408	2,080	12.2%
5	러시아	349	818	4.8%
6	적도기니	701	755	4.4%
7	브루나이	392	510	3.0%
8	호주	503	450	2.6%
9	예멘	46	412	2.4%

자료: 한국무역협회.

■ 중동지역은 우리의 주력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대상지역인데, 2010년 수주금액은 47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수주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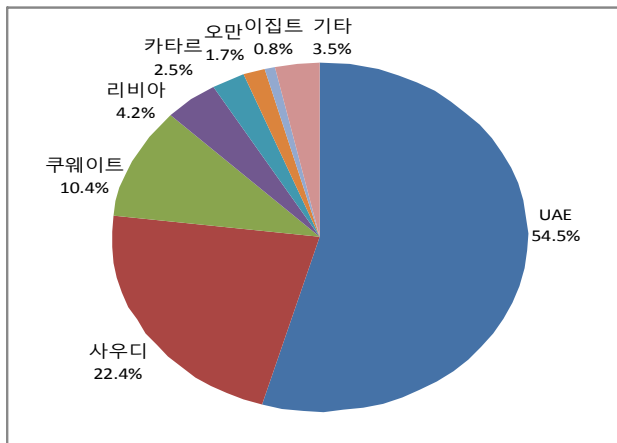
- 2010년 기준으로 주요 수주 대상국가는 UAE(수주액 256억 달러, 대중동 수주비중 54.2%)와 사우디아라비아(105억 달러, 22.3%), 쿠웨이트(49억 달러, 10.4%), 리비아(20억 달러, 4.2%) 등임.

표 7. 우리나라의 해외 지역별 건설플랜트 수주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년		2010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 수주액	49,147	100.0%	71,573	100.0%
중동	35,746	72.7%	47,250	66.0%
아시아	10,909	22.2%	18,076	25.3%
아프리카	1,209	2.5%	2,447	3.4%
유럽	470	1.0%	398	0.6%
미주태평양	814	1.7%	3,403	4.8%

자료: 해외건설협회.

그림 8. 우리나라의 대중동 건설플랜트 수주 대상국가별 비중



주: 2010년 수주 금액기준.
자료: 해외건설협회.

■ 대중동 수출금액은 28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력 수출품목은 자동차, 선박, IT 제품, 플랜트 설비 등임.

- 2010년 우리의 대중동 주력 수출대상 국가는 UAE(수출액 55억 달러, 대중동 수출비중 19.3%)와 이란(46억 달러, 16.2%), 사우디아라비아(46억 달러, 16.1%) 순이며, 다음으로 이집트와 알제리, 리비아가 각각 대중동 수출의 5~8%가량을 차지함.
- 2010년 우리의 대중동 주력 수출품목은 자동차(수출액 79억 달러, 대중동 수출비중 27.7%) 및 자동차부품(11억 달러, 4.0%)과 선박(19억 달러, 6.7%)이며, 합성수지와 무선통신기기, 강철관 등이 각각 3~4%가량을 차지함.

표 8.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국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2009	2010	비중
합계	24,039	28,369	100.0%
UAE	4,978	5,487	19.3%
이란	3,992	4,597	16.2%
사우디아라비아	3,857	4,557	16.1%
이집트	1,528	2,240	7.9%
알제리	1,095	1,496	5.3%
리비아	1,235	1,411	5.0%
요르단	1,019	1,266	4.5%
시리아	960	1,256	4.4%
이라크	785	1,201	4.2%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9.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2009년	2010년	비중
합계	24,039	28,369	100.0%
자동차	6,033	7,855	27.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611	1,905	6.7%
자동차부품	864	1,139	4.0%
합성수지	910	1,134	4.0%
무선통신기기	797	1,069	3.8%
철강관	1,020	1,028	3.6%
정전기	893	842	3.0%
영상기기	414	660	2.3%
건설광산기계	437	635	2.2%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718	597	2.1%

주: MPI 3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대중동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나 광업 분야(유전개발)에 21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 2010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동 직접투자 누계액은 27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액의 2%에 불과함.
- 한편 대중동·북아프리카 광업 분야 투자금액은 21억 달러로

전체 해외광업 투자의 11.2%를 차지하고 있음.

- 국가별 광업 분야 투자액은 예멘이 13억 달러(대중동 광업투자의 62%), 오만 2.6억 달러(13%), 리비아 2.6억 달러(13%), 이라크 1.5억 달러(7%), 이집트 1.3억 달러(6%)임.

표 10. 우리나라의 해외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지역	신규법인 수	비중	투자금액	비중
합계	47,872	100.0%	149,359	100.0%
아시아	32,410	67.7%	68,683	46.0%
북미	10,517	22.0%	34,922	23.4%
유럽	1,968	4.1%	26,135	17.5%
중남미	1,063	2.2%	10,903	7.3%
대양주	1,209	2.5%	3,733	2.5%
중동	394	0.8%	2,689	1.8%
아프리카	311	0.6%	2,294	1.5%

주: 2010년 9월 누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다. 핵심 관찰대상 국가

- 중동 국가별 반정부 시위 발생가능성과 한·중동 경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정부 시위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는 국가 가운데 이란, 이라크, 이집트, 리비아, 예멘이 우리의 주요 관찰대상 국가임.

- 이란은 반정부 시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 원유수입액의 8.1%(56억 달러),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0%(대중동 수출의 16.2%, 46억 달러)를 차지하며 경제적 긴밀도가 비교적 높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라크 역시 반정부 시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 원유수입액의 6.4%(44억 달러), 우리나라 해외 광업투자액의 0.8%(1.5억 달러)를 차지하는 관계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집트 역시 반정부 시위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 총수출의 0.5%(대중동 수출의 7.9%, 22억 달러), 우리나라 해외 광업투자액의 0.7%(대중동 광업투자의 6.2%, 1.3억 달러)를 차지하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집트는 중동 내 정치·문화적 위상으로 인해 향후 권력이양 경과 및 결과에 따라 중동정세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리비아 역시 반정부 시위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군으로 분

류되는데 우리나라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액의 2.7%(대중동 수주액의 4.2%, 20억 달러), 우리나라 해외 광업투자액의 1.4%(대중동 광업투자의 12.5%, 2.6억 달러)를 차지하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예멘 역시 반정부 시위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액의 2.4%(4.1억 달러), 우리나라 해외 광업투자액의 6.9%(대중동 광업투자의 75%, 13억 달러)를 차지하는 관계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동 국가별 반정부 시위 발생가능성과 한·중동 경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정부 시위 발생가능성이 중간수준에 속하는 국가 가운데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이 우리의 주요 관찰대상 국가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반정부 시위 발생가능성이 중간수준인 국가군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 원유수입액의 33.3%(229억 달러), 우리나라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액의 14.7%(대중동 수주액의 22.3%, 105억 달러), 우리나라 총수출의 1.0%(대중동 수출의 16.1%, 46억 달러)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와 경제 긴밀도가 높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오만 역시 반정부 시위 발생가능성이 중간수준인 국가군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액의 17.2%(29억 달러), 해외 광업투자액의 1.4%(대중동 광업투자의 16%, 2.6억 달러)를 차지하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동 국가별 반정부 시위 발생가능성과 한·중동 경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정부 시위 발생가능성이 낮은 국가 가운데 UAE와 쿠웨이트, 카타르가 우리의 관찰대상 국가임.

- UAE는 반정부 시위 발생가능성이 낮은 나라로 평가되나 우리나라 원유수입액의 12.8%(88억 달러), 우리나라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액의 35.8%(대중동 수주액의 54.2%, 256억 달러), 우리나라 총수출의 1.2%(대중동 수출의 19.3%, 55억 달러)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와 경제 긴밀도가 높은 관계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쿠웨이트는 반정부 시위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이나 우리나라 원유수입액의 12.4%(85억 달러), 우리나라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액의 6.8%(대중동 수주액의 10.4%, 49억 달러)를 차지하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카타르 역시 반정부 시위 발생가능성이 낮은 국가로 평가되나 우리나라 원유수입액의 7.2%(49억 달러), 천연가스 수입액의 29.0%(49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표 11. 한·중동 경제관계하의 주요 관찰대상 국가

		반정부 시위발생 가능성 低	반정부 시위발생 가능성 中	반정부 시위발생 가능성 高	비 고
에너지	원유 수입	UAE(12.8%), 쿠웨이트(12.4%), 카타르(7.2%)	사우디아라비아 (33.3%)	이란(8.1%) 이라크(6.4%)	한국의 원유수입액 686억 달러 중 중동 비중 81%(562억 달러)
	천연가스 수입	카타르 (29.0%)	오만 (17.2%)	예멘(2.4%)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액 170억 달러 중 중동 비중 51%(87억 달러)
	유전 개발	-	오만 (1.4%)	예멘(6.9%) 이라크(0.8%) 리비아(1.4%) 이집트(0.7%)	한국의 해외 광업 투자액 187억 달러 중 중동 비중 11.2%(21억 달러)
건설·플랜트 수주		UAE(35.8%), 쿠웨이트(6.8%)	사우디아라비아 (14.7%)	리비아(2.7%)	한국의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716억 달러 중 중동 비중 66%(473억 달러)
수출		UAE(1.2%)	사우디아라비아 (1.0%)	이란(1.0%) 이집트(0.5%)	한국의 총수출액 4,664억 달러 중 중동 비중 6.1%(284억 달러)

주: () 안은 한국의 대외경제 분야별 중동 해당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필자 작성.

■ 특히 중동 주요 관찰대상국 가운데 우리의 핵심 관찰대상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인 것으로 평가됨.

표 12. 한국의 대중동 핵심 관찰대상 국가

	한국과의 경제간밀도 低	한국과의 경제간밀도 中	한국과의 경제간밀도 高
반정부 시위발생 가능성 高	이라크, 예멘, 이집트, 리비아	이란	-
반정부 시위발생 가능성 中	오만	-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부 시위발생 가능성 低	-	쿠웨이트, 카타르	UAE

자료: 필자 작성.

4. 전망 및 시사점

가. 반정부 시위 확산 수준별 경제적 영향

■ 반정부 시위 확산의 경제적 영향은 시위 발생 대상국가의 범위와 시위강도, 전개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것임.

- 현재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와 미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 이상저온에 따른 에너지 수요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 상승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는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동 반정부 시위 및 소요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될 경우 국제

유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중동 및 세계경제가 받는 직접적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오히려 석유수급 불안심리로 인한 국제유가의 단기적 변동성 확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걸프 지역 핵심 산유국들에 경상수지와 성장률 측면에서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중동 주요 산유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대중동 수출 및 건설·플랜트 수주 역시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동의 반정부 시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걸프 지역 핵심 산유국으로 전이된다면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심리 기증으로 국제유가의 단기적 추가상승이 불가피할 것임.

- 중동 핵심경제권이자 세계 원유생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GCC³⁾ 산유국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음.

-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걸프 핵심산유국에서 시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 충격을 주는 물리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동경제 및 세계경제에 대한 악영향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임.

■ 과거 1·2차 석유파동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산유국의 에너지 생산·운송시설 파괴나 자원무기화 같이 세계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음.

- 1·2차 석유파동의 원인은 지정학적 정세급변 상황에서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자원을 무기화했기 때문임.

○ 1차 석유파동의 원인은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가 4차 중동전쟁을 배경으로 유가 인상 및 감산을 선언하며 전 세계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초래했기 때문임.

○ 2차 석유파동의 원인 역시 주요 산유국인 이란이 이슬람 혁명 과정에서 석유수출을 중단하며 전 세계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초래했기 때문임.

- 따라서 만약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산유국의 에너지 생산·운송시설이 파괴되거나 정세급변으로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가 이루어진다면 국제유가가 급등이 불가피함.

3) Gulf Cooperation Council(걸프협력회의)의 약자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이 회원국임.

표 13. 중동 산유국의 시위발생 가능성 분류 및 석유생산 비중

	원유생산량 低	원유생산량 中	원유생산량 高
반정부 시위발생 가능성 高	이집트(0.9%) 예멘(0.4%)	리비아(2.0%) 알제리(2.0%)	이란(5.3%) 이라크(3.2%)
반정부 시위발생 가능성 中	오만(1.0%)	-	사우디아라비아 (12.0%)
반정부 시위발생 가능성 低	-	카타르(1.5%)	UAE(3.2%) 쿠웨이트(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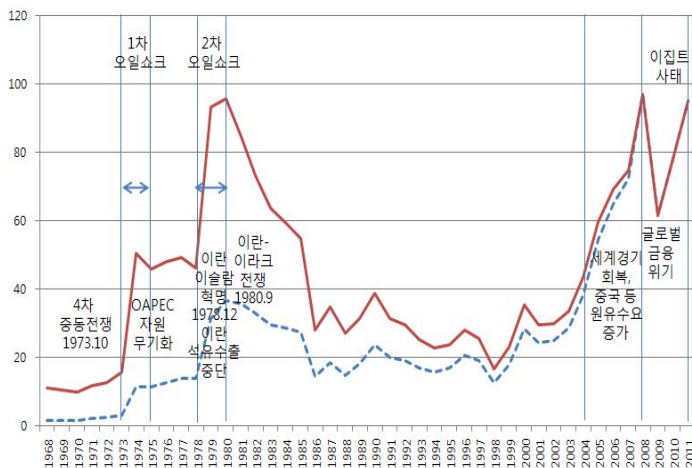
주: () 안은 해당 산유국의 전 세계 원유생산 비중임.
자료: BP 등을 참고로 필자 작성.

표 14. 중동 반정부 시위 대상국 범위 및 전개 상황별 국제유가 향방

	시위진압/소멸	시위발생	생산·운송 시설 파괴	자원 무기화
시위발생 위험 高 산유국(이란, 리비아, 알제리)	유가 하향안정화	수급불안심리 (단기 변동성 확대)	단기 수급차질 (유가 추가상승)	중장기 수급차질 (유가 급등)
시위발생 위험 中·低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	수급불안심리 가중 (단기 변동성 확대)	단기 수급차질 (유가 추가상승)	중장기 수급차질 (유가 급등)

자료: 필자 작성.

그림 9. 국제유가의 명목가격 및 실질가격 추이



주 1) 국제유가 점선은 명목가격이며, 실선은 실질가격(2009년 가격기준).
2) 2011년은 2월 18일까지 평균가격임.
자료: BP; 한국석유공사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나. 중동 정세변화에 따른 주변국의 역학관계 변화

■ 반정부·민주화 시위로 중동국가들의 정권붕괴가 이어짐에 따라 향후 중동지역을 둘러싼 주변국의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이집트 정권붕괴를 계기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 등 미

국의 대중동 정책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뿐만 아니라 이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의 향후 결과나 반정부·민주화 시위의 사우디아라비아·UAE 확산 여부에 따라 미국의 대중동 전략 및 중동 내 영향력이 크게 변할 수 있음.

■ 최근 중국과 중동국가 간 경제관계가 긴밀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중동 내 정치·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현 중동 정세변화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이란을 위시한 주요 중동국가들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특히 이란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음.

■ 중국의 대중동 진출 확대가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현 중동정세 변화는 한·중동 외교·경제협력 관계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동의 민주화 및 민족주의 진전의 향방에 따라 중동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평가 및 관계 설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정세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다. 중동정세 변화의 향방에 따른 대중동 전략 재정립

■ 현재 중동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정부·민주화 시위는 향후 중동 정치·사회·경제 각 분야별 변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그 진행 결과에 따라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실체화될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 관점에서 현 중동 소요사태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과 시장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중동 및 세계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중동 소요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한편 중동 반정부 시위의 배경에는 중동 국민들의 민주화 및 생활수준 개선 요구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현자국 정부의 대응 결과에 따라 중동사회의 중장기적 발전 여부가 판가를 날 것임.

- 특히 중장기적으로 중동지역의 민주화가 진정될 경우 중동 정부 및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행정·비즈니스 분야 투명성 제고에 힘입어 중동지역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됨은 물론 시장경쟁 활성화로 중동 진출 후발기업들

에도 새로운 사업기회가 주어질 것임.

그림 10. 중동 반정부 · 민주화 시위 결과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전개가능 방향



자료: 필자 작성.

■ 이에 우리는 중동정세의 변화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대중 동 진출 및 협력전략을 탄력적으로 수립 ·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중동의 정세변화가 에너지 수급과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에너지 수급 및 수출 · 수주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중동의 정치 ·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현지 제반 경영환경 역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 및 시장기회 포착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또한 향후 중동 산유국들과의 협력수단으로 한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 경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동국가와 협력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반정부 ·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중동 산유국 집권층은 권력유지를 위해 자국민의 실질적 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위기 의식에 봉착한 만큼 향후 산업다각화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식민지배와 전쟁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계적으로 성취한 국가인 만큼 향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추진해야 하는 중동 산유국들에 모범적인 발전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에너지 도입과 건설 · 플랜트, 수출 분야에 치중된 한 · 중동 경제관계의 다변화를 위하여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한 · 중동 간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EP